

보도일자

배포 즉시

2017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
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(원장 조명현, 이하 CGS)은 국내 상장회사의 환경경영(E), 사회 책임경영(S), 지배구조(G) 수준을 평가하여 2017년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함
- ESG 등급 공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의
- * 각 ESG 등급 및 ESG 통합 등급은 S, A+, A, B+, B, C, D 7등급으로 구분

2017 등급 특징 - 지배구조 부문 정성평가(심층 인터뷰) 실시

- CGS는 ESG 등급의 실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으며, 특히 2017년에는 지배구조 평가에 정성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실시
- 이에 따라 2017년 “지배구조” 등급은 A 등급의 부여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, 정성평가가 우수한 회사에 한정하여 상위 등급을 부여
- * 신한금융지주가 평가대상기업 중 처음으로 지배구조 부문에서 ‘S’ 등급 부여
- 따라서 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2016년 A+ 등급은 2017년 A 등급과 유사한 수준

※ 지배구조 정성평가 - 심층인터뷰

- (대상) ESG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보인 상장회사
- (방법) 경영진, 사외이사,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개별적·독립적 질의응답
- (기대효과) 공시정보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등급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등급의 실질을 제고하는 한편, 질의응답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
- (향후계획) 정성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사회책임경영, 환경경영에서도 정성평가 도입을 검토

- 정성평가 결과, 대상회사의 사외이사는 경영진·최대주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
 - 단 사외이사가 “이사”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 “위원”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교육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또한 경영승계 및 후보자육성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

2017 등급 부여 결과

- 상장회사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지배구조 B+ 이상 양호군의 증가가 특징적이며, 사회책임경영 및 환경경영의 등급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년과 유사
 - 주주에게 서면투표제, 전자투표제,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 다양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제공하는 회사와,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, 위원회 등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가 큰 폭으로 증가

(괄호 안은 전년도 회사 수)

등급\구분	환경경영	사회책임경영	기업지배구조	ESG 통합
S	-	-	1 (0)	-
A+	4 (3)	28 (36)	3 (33)	5 (9)
A	58 (63)	48 (36)	53 (30)	39 (38)
B+	147 (133)	108 (122)	155 (99)	118 (104)
B	524 (514)	549 (519)	349 (304)	571 (562)
C			156 (219)	
D			16 (28)	
계	733			

전망 및 과제

- ESG를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하는 “책임투자”는 범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
 -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장회사는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필요
 - 지속가능경영은 회사의 자본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투자자를 유치하여 경영안정성에도 기여

- CGS는 국내 상장회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대내외적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

붙임. 2017년 ESG 등급별 기업 목록

※ 담당 : ESG 사업본부 윤진수 본부장 (02-3775-3701, js-yoon@cgs.or.kr)
ESG 분석1팀 방문옥 팀장 (02-3775-3711, moonoki@cgs.or.kr)